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공부 잘하는 7가지 방법

-정근모 박사-

원자력 분야의 세계적 석학 정근모 박사(한국 사랑의 집짓기운동 이사장·삼성제일교회 장로)는 사람들 사이에 '천재'로 통한다. 왜냐 하면 당시 최고의 수재들만 들어가는 경기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한 후 고교 생활 4개월만에 월반, 서울대에 차석으로 합격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미국 미시간 주립대를 졸업하고 스물네살의 나이에 플로리다대 교수가 됐다. 학생보다 나이가 어린 '꼬마교수' (Boy Professor)로 불리던 그는 그후 뉴욕공대 교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원장, 과기처장관을 두번 역임하는 등 남들이 상상하기 힘든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이 화려한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안에서 생활해온 결과일 뿐"이라며 쑥스러워 한다. 그가 쓴 책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에서 밝힌 예수 안에서 공부 잘하는 '7가지 방법'은 계량적 아이큐를 뛰어넘는 신앙안 지혜를 보여준다.

첫째, 어머니의 기도와 잔잔한 미소가 힘이다. 어머니의 밝은 표정은 그의 어린시절 최고의 기쁨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병마에 시달리고있었지만 아들을 대할 때면 병상에서 일어나 기도한 후 꼭 연필을 깎아주었다고 한다. 그는 초등학교 6학년때 어머니를 잃었다.

둘째, 노트정리를 하지 않는다. 수업시간엔 정신을 집중해 교사의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데 힘쓴다.

셋째, 교우관계를 원만히 유지한다. 문학 및 적십자활동 등이 겸손을 배우는 장이었다.

넷째, 나이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등학교 과정을 3개월만에 마치고 대학에 진학했을 때 이해력 부족은 치명적 약점이 되었다고 한다.

다섯째, 폭넓은 독서와 문학서클 활동은 사고의 폭을 넓혀준다. 입학시험이나 학력경진대회에서 단연 1등할 수 있었던 것은 '논술능력', 즉 독서로 인한 것이었다.

여섯째, 예상문제를 정리하고 푸는 습관을 기른다. 예상문제중 몇 문제만 나오더라도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이라는게 가장 영광스럽다'는 생각을 갖게 하라. 공부도 바른 크리스천이 되기 위함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부모의 몫이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익명성 - 명예
제 4권 6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 2월 10일
☎ 520-9464/021-292-1639, ☎ 71 Khyber Pass Rd.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예수님 심정

"너희의 생각은 어떠냐? 어떤 사람에게 양 일백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자. 그 사람은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그대로 둔 채 그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냉정한 이성을 소유한 장사꾼이 대답했다.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아나서다니요? 그 한 마리를 찾으려다가 아흔 아홉 마리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인 경영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목자는 머리가 돌았군요."

어느 날 그가 아들 삼형제 중 하나를 잃어버렸다.
"너희의 생각은 어떠냐?... "고 다시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목자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저도 얼마 동안은 잃어버린 자식의 모습 말고는, 아무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 아이에게만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저에겐 두 아들이 남아있으니까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냉혹한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무정한 아버라고 비난받아도 어쩔 수 없어요."

어느 날 그가 깊은 산 속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가시나무 우거진 바위 벼랑에 매달려 그는 소리질렀다.

"당신은 아흔 아홉 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겠다고 하셨지요? 당장 이리로 와 주십시오. 결코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아 주세요! 어리석은 목자, 무정한 아버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제발, 저를 버려지는 마십시오."

-이현주-

어머니가 딸에게 주는 충고
짜장면
데이트할 때에 짜장면을 먹지 마라.
아무리 예쁘게 먹어도 흥잡힐 일이
생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충고
돈이 생기면 우선 책을 사라
옷은 헤어지고, 가구는 부서지지만
책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위대한
것들을 품고 있다.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8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4(시 8편)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512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신경화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사무엘상 26:6-12(구 45)	인 도 자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성가대 찬양 Couple's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다윗과 아비새'	임성광 목사
찬 송 Hymn	'487'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tory Prayer	(기도후 착석)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위탁의 말씀 couragement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2월의 예배 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Tea Time	주일안내
3일	송정섭	정덕수	이광희, 이재영	윤형권, 박정자
10일	신경화	정희자	이종길, 이종운	이종길, 송정남
17일	윤한나	최기향	정덕수, 최윤호	이광희, 정덕수
24일	윤형권	최윤호	최재학, 김영길	이기중, 정희자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실천사항> 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답살돋는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하 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	---

주일예배 12:00 | 수요일예배 7:30 pm | 금요일새벽기도: 6:00 | 아동, 학생, 청년부: 주일12시

교 회 소 식

- 2002년 교회생활 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성경: 엡5: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월 실천사항: 1주 토-아버지의날, 2주 토-어머니의 날, 3주 토- 자녀의 날
-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믿음의 어머니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여선교회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12일(화) 저녁 7:30. 교회(주일학교실)
- 설날엔 떡국이~~~~: 오늘 예배후 식사친교는 제2여선교회에서 떡국을 대접하면서 설날(12일)의 기쁨을 나눠드립니다. 예배 후 설날의 잔치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2여선교회원 여러분께 감사
- 12일이 설날입니다: 고국 떠나온지 오래면 오래대로, 얼마전이면 얼마전대로 명절이면 고향이 늘 그리웁습니다. 뉴질랜드도 설날을 공휴일로 보내야 할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 사순절 시작: 13일은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 전날까지 40일을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경건한 기간으로 지내는 기간입니다.

	교 회 력	모임 및 행사	기 념 일
27/1 3일	1월 이삭줍기	구역예배(8일) 설날 식사친교(제2 여선교회)	
10일	사순절 시작(13일)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12일)	
17일		여선교회(22일) '약속의 아비' 성경공부(19)	K&L(1) 결혼기념일(21)
24일	'이삭줍기' 봉헌	신임집사 세미나(28일)	P&L(2) 이민기념일(28)

◆ 마음 읽기 ◆

수채화처럼 투명한 파란 나뭇잎들이 반짝이는 오월의 어느 날, 엄마들의 자식 자랑이 한창입니다.
"우리 개똥이는 벌써 한글을 읽어요."
"우리 말뚝이는 영어도 읽는데...."
"우리 콩돌이는 100까지 셀 수 있어요."
민석이 엄마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석이는 아직 국어도 영어도 못 읽지만 엄마 마음을 잘 읽어요."
- 이웃의 마음을 읽고, 헤아리는 공부가 먼저겠지요.